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해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

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일부 상향되었는 바,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황 대비 200~300억원 상향되었으며,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하였고,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였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도 일부 상향되었는데,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황 대비

5~20억원 상향되었으며, 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하였고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였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외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인척을 유인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부여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여 2025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받은 기업이 9월 1일 시행되는 매출액 기준 상향 이후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2026년부터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2025년 시작된 유예는 종료 위 사례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유예가 1년차 이후 조기에 중단되므로, 향후 중소기업 범위를 다시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하였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고창군청 군수실에서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창군에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

전은지역사랑봉사단, 장애인 등 재활서비스 공백 해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고창군청 군수실에서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으로 지난 4월 총 지원규모 60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15개 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별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은 전체인구 중 장애인구가 약 10%로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 공백 해소 및 사회성 향상 통합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해 선정됐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지역사랑성금을 통해 치료사 부족과 한정된 치료시간으로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 특수놀이 체육활동 가족 물놀이 및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전달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정종만 관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 이미지영 고창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김호은 전북환경청장, 농·축산 분야 비점저감대책 현장점검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25일 완주군 익산시 일원에서 농·축산 분야 비점오염 저감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수질환경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했으며, 김 청장은 농업 비점 거버넌스의 토지 물리관리 활동 현장과 축산오염개선사업인 돈분뇨화방류시설 운영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토지 물리관리 활동은 농경지에서 오염물질 유출을 사전에 줄이는 대표적인 농업 비점저감기법이며, 돈분뇨화방류시설은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여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축산계 기반시설이다.

한편, 전북지역은 비점오염 부하량이 전국 평균(69%)과 비교시 84%에 달하고, 이 중 농·축산계 오염부하량이 99%를 차지, 관리가 특히 요구된다.

김호은 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확대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

소상공인서 소기업·중기업 등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유지·포기 선택권 부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간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하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으로, 해당 구역제도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을 위해 2022년 도입되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관원, '친환경인증 경영일지 뽐내기 대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전북 자치도 관내 친환경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경영일지 뽐내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작성한 농업 경영일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인증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농업인의 인증기준 준수 독려 등 친환경농업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

로 전북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 개최한다.

참여 방법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여 응모신청서와 함께 꼼꼼히 기록한 경영일지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작성 방식은 손으로 직접 작성한 방식을 포함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이 모두 인정되며, 양식에 상관없이 수첩, 달력 등에 자유롭게 기술한 영농기록도 모두 가능하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이 증정되는 것을 비롯해 총 50만원 상당의 경품이 준비되어있으며, 수상작은 교육 자료로 작성하여 농업인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농업 경영일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친환경농업 실천의 중요한 증거이자 품질관리의 핵심 도구"라면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농산물 대만 수출 확대 박차

전북농협, 2025년산 남원 배 대만 첫 수출 개시

전북농협은 남원원에농협, 남원시조 합동사업법인과 함께 올해 생산한 남원지역 배를 대만에 수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적식을 26일에 가졌다.

선적식에는 최정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이정린·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위원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남원에서 재배되는 배(원형 신품)는 대만산 배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아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며 이번 대만 수출을 통해 전북산 배의 맛과 품질을 홍보하고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수출되는 16톤 물량을 시작으로 연간 약 2억원의 남원지역 배를 대만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



월 '25년산 남원 양파를 대만에 성공적으로 수출한데 이어 다시 한 번 배를 대만에 수출함으로써 대만 시장에서 전북 농산물의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수출 물량을 지속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요시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 즉, 농심천심(農心天心)이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